

유리 물고 미술 연구원

탱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현대불교

그동안 크게 서비스는 평상
빅만평생동장

● 40년 지체 임직 30년 최고
1만원까지 대우를 드립니다.
● 3년이상 지체하면 거액의
인내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02-627-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발기 2541년(서기 1997년) 2월 2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22살은 인숙영절 대보름, 이때엔 불교계는 전통적으로 대대적인 방생법회를 열고있다. 방생의식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자비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미물까지도 내 생명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방생은 최근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어류 갑각류 조류부터 인간 방생에 이르기까지 대상과 형태 및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일체중생을 제도하려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생의 공덕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항상 방생(放生)을 행하고, 남도 방생하도록 해야한다. 만악 세상 사람이 축생(畜生)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호해 그 괴로움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법림경>

온갖 중생의 생명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도움을 주려는 자애의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보살은 악한 생각으로 모든 중생을 괴롭히는 일이란 없는 터인데, 하물며 남에게 중생상(衆生相)을 일으켜 차별함으로써 고의로 살해할 줄이 있겠느냐. <화엄경>

보살은 자심(慈心)을 지녀서 사방의 사람들과 심지어 벌레의 부류까지도 가없이 여기되, 갖난애같이 보아 다 해탈케 해야 한다. <태지세호경>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따위의 온갖 악취에 들어가 중생의 괴로움을 제거하고, 해탈하지 못한 자를 해탈케 하며, 구제되지 못한 자를 구제하며, 열반에 들지 못한 자를 열반에 들게 하며, 온갖 공포에 떠는 자를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는 등의 정업 <아난사사경>

항상 방생하기 삼매...

(正義)의 인연이 수명을 길게 하여 지혜를 자재롭게 해 주느니라. <열반경>

옛날에 한 사미가 개미를 구해줌으로써 착한일을 닦은 까닭에, 그 수명이 다하도록 괴로움이 없고 몸이 편안했으니, 복덕의 힘이 강했기 때문 이니라. <생사득도경>

비심(悲心)을 내어 중생을 양육해야한다. 그리하여 한낱 개미까지라도 공포에서 건져주는 것, 이것이 사문의 의무이다. <열반경>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려. <법구경>

비(悲)심을 내어 중생을 양육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낱 개미까지라도 공포에서 건져주어야. <열반경>

금수 벌레 천인(天人)중 살려주기를 바라는 자를 보았을때는 언제나 가없이 여겨 뜻대로 먹여 편안함을 얻게하라. <아난사사경>

“스님의 무소유 어디까지...”

“최소생활 개인재산 필요” 75%... “정재는 공유재산” 93%

선우도량, '삼보정재와 수행자 윤리성' 설문

현대사회에서 스님들의 '무소유'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출가수행자 개인소유를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3면>

이같은 사실은 선우도량(공

화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은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5.3%로 나타났다.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 가운데 44.5%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정도'에서 사적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사회사업 및 포교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 25.6%, '노후생활을 의탁할 수 있는 정도'는 20.1%로 집계됐다. 이는 일정부분 사적소유는 허용하되, 사회생활을 하거나 노후문제를 위해 중단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삼보정재의 소유 형태는 93.4%가 공유재산으로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사설사업 또한 과반수이상(63.1%) 일정기간 경과후 공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삼보정재의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75%가 '관리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그 이유로 '종단관리미비'(32.2%)를 최우선적으로 지적했다.

병자년 동안거 해제 월하종정 법어

萬物何所色 兩諦何處來
大明無私照 至公無私觀
達磨不離世 六祖不礙法
竹樹猶生處 石火掛青天
會麼 誰不見玄黃色 耳不聞鐵樹聲
비람은 무슨 색이며, 비는 어느 곳으로 오는가
크게 밝음은 사사로움 바침이 없고, 지극히 공평함은 사사로움 천함이 없네
달마대사는 참선을 알지 못하고, 육조대사는 부처님 법을 알지 못하네
죽비는 생활에서 부여졌고, 돌과 불은 푸른 하늘에 걸려있지
아는가
눈에는 검고 누런색이 보이지 않고, 귀에는 푸른 대나무소리가 들리지 않네 <도필선 기사>



전통사찰 농지취득 법제화 '난항'

농림부 반대...정각회 '회기내 통과 노력'

농림부가 최근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조계종총무원에 농지법 개정 반대사를 밝혀와 불교관계법 개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이달 중순 총무원에 개정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총무원은 전통사찰의 복원과 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농지취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회 정각회와 농림부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각회는 지난해 12월 의원리더들이 예상된다고 농림부는 이달 중순 총무원에 개정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총무원은 전통

달라이라마, 등소평 사망 애도

“티벳문제 그와 해결하고 싶었다”

오늘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이 임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몇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를 만났다.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자신의 의무와 관련한 일에 대해서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그에게서 받은 첫인상이다. 숱한 문제를 담고있는 거대한 중국이지만 여기에도 성공과 해악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전체주의를 표방한 공산당의 지도자였다. 비록 개인적으로 선(善)을 추구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전체주의 체제가 결정했고 수많은 과오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선(善)과 악(惡)을 따지기 전에 역사의 한 장은 막을 내렸다. 티벳문제에 관련해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해결하고 싶었다. 그러한 바람과 노력이 '티벳문제'에 반영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아마 그 이것을 안타까워 할 것이



국보급 '청동 문수동자상' 발굴

국보급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청동제 문수동자상(文殊童子像)이 발굴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목포대학교 박물관(관장 유원익)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영암 도갑사 경내 발굴조사결과 현 대웅전 뒷편 건물자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문수동자상과 청동광배(光背), 청동불상(佛尊), 명문기와 등 다량의 유물을 발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조계종 대형법회로 봄 맞는다”

26일 자비탁발...4·5월 행사 잇달아

조계종총무원(원장 일주)은 지난 18일 서울하림각에서 직할사암주지 간담회를 열고 자비의 탁발, 직할교구 합동방생법회 등 5월중순까지 1천명에서 5만명(총무원 제시 수치)이 참석하는 대형행사 계획을 밝혔다. 자비의 탁발 26일 오후1시 조계사대웅전에서 '탁발의 날' 선포식을 갖고 서울 탑골공원과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앞, 명동 삼양은행 앞 등 서울 3개 지역과 대전 김천 진주 군산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시에 거행한다. 3시부터 5시까지 탑골공원 인근에서는 총무원장 일주스님과 직할사암주지 및 대중스님, 중앙승가대 학인, 신도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

운대 본행사를 실시한다. 용주사 신홍사 등 19개 교구본사도 3월4일까지 각 지역별로 실시한다. 직할교구 합동 방생법회 삼지날(양력 4월 9일)을 기해 직할교구 소속 사찰 및 용주사 본선사 본말사 신도들이 참석, 남북통일과 국민인생을 기원하는 대규모 방생법회를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현근스님은 3만~5만명의 신도를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동축제 전야 대법회 총무원장 일주스님은 이번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조계종 주도로 치르겠다고 밝히고 예년과 달리 연동축제 전야에 대법회의 축하메시지 낭독, 3부요인을 비롯 1천여명이 참석하는 봉축전야 대법회를 봉행하겠다고 말했다. 나라·민족 위한 대법회 5월 초 개최 예정이다. 기원법회는 지난해까지 종단협의회에서 주최해 왔으나 '관련행사'라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치르지 않기로 한 행사이다.

제주 법정사 10만평 성역화 15면

울주에 '매머드 불교타운' 선다 14면

사찰박물관 실태와 방향 7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신도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미!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항방재료추출물 (오이지,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도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신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해독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icid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켜,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기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에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물공학기술로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영준
대기 및 실내에 존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과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전강이후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진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민
세면비누는 미용수용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전강이후비누"는 과제에 아답디어 상품이다.
신상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석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항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한국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내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문부 02)737-8881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

첨단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